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체감경제고통지수 조사 결과

발행인 : 하 태 형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 원,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4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체감경제고통지수 조사 결과

Executive Summary	i
1. 연구 목적	1
2. 체감경제고통지수 정의 및 산출방식	2
3. 체감경제고통지수 조사 결과	4
4. 시사점	11
【HRI 경제 통계】	13

< 요약 >

■ 체감경제고통지수의 정의 및 산출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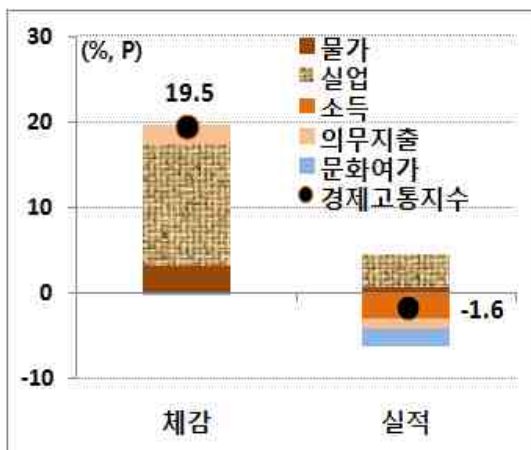
소비 주체인 국민의 체감경제고통은 소비심리와 관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 소비활동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체감경제고통지수'를 정의하고 분석하였다.

체감경제고통지수는 '체감물가 상승률 + 체감실업률 - 체감소득 증가율 + 체감의무지출 증가율 - 체감문화여가지출 증가율'로 정의된다. 경제고통지수가 1p 상승한다는 것은 국민경제 차원에서 일자리가 26.5만 개 감소한다는 것, 혹은 모든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1%p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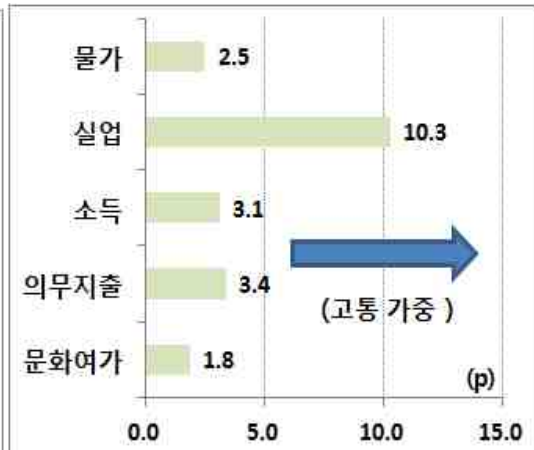
■ 체감경제고통지수와 실적경제고통지수 비교

2015년 1분기에 체감경제고통지수는 19.5p로, 정부 공식 통계치로 산출한 '실적경제고통지수' -1.6p보다 21.1p나 높은 수준이다. 특히 실업률이 괴리를 견인했다. 정부가 발표한 실업률이 1월 기준 3.8%에 불과한 반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14.1%로 10.3%p나 더 높았다. 뒤를 이어 의무지출증가율 격차는 3.4%, 소득증가율 격차는 3.1%, 물가상승률 격차는 2.5%, 문화여가지출증가율 격차는 1.8%로 나타났다.

<체감경제고통지수와 실적경제고통지수>



<요소별 체감-실적 괴리 기여도>



연령별로 보면, 20대 청년의 체감경제고통지수가 40.6p로 전체 평균 19.5p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청년의 체감실업률이 37.5%에 달했기 때문이다. 반면 30대와 40대의 체감경제고통지수는 각각 10.3p, 11.3p로 낮은 수준이고, 50대 이상도 17.2p로 전체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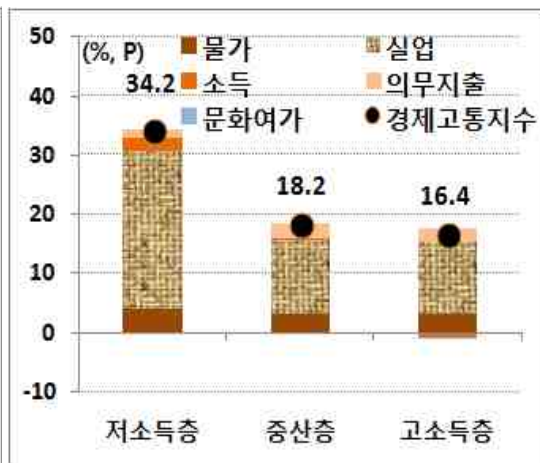
소득수준별로 보면, 저소득층의 체감경제고통지수가 34.2p로 매우 높았는데, 체감실업률(26.7%)과 체감물가상승률(4.0%)이 타 계층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한편 중산층은 교육비, 주거비 등의 의무지출 부담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현재 체감경제고통이 가장 큰 사람은 “서울에 사는 20대 저소득층 여성”이고, 체감경제고통이 가장 작은 사람은 “영남지역에 사는 30대 고소득층 남성”으로 대표된다.

<연령별 체감경제고통지수>



<소득수준별 체감경제고통지수>



■ ‘현재 체감경제고통지수’와 ‘전망 체감경제고통지수’ 비교

국민들은 1년 후의 경제고통이 현재보다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년 후의 경제고통을 나타내는 ‘전망 체감경제고통지수’는 9.8p로, ‘현재 체감경제고통지수’ 19.5p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가장 큰 이유는 전망 체감실업률이 6.0%로 현재 체감실업률 14.1%보다 8.1%나 낮기 때문이다. 그만큼 고용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뜻한다. 물가, 소득 등 다른 요소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사점

국민의 체감경제고통을 완화시킬 대책이 요구된다. 첫째, 청년층과 50대 이상, 저소득층의 체감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일자리의 질 향상 및 고용여건 개선이 긴급하다. 이는 가장 확실한 소득향상대책이 될 것이다. 둘째, 교육비, 주거비 등 의무지출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여가지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체감물가와 실제물가의 괴리는 통화정책 운용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1. 연구 목적

- (연구배경)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제고통은 소비심리 및 실제 소비 활동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체감경제고통을 반영하는 지표 구축이 필요
 - 소비활동의 주체인 가계가 체감하는 경제고통은 소비심리와 관련성이 높으며, 이는 실제 소비활동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미국의 경우 경제고통지수(물가상승률+실업률)와 소비심리지수가 비슷한 추이를 띠고 있으며, 민간소비의 선행지수로 활용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정부의 공식 통계로 추산한 '실적경제고통'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제고통'과 상당한 괴리가 존재
 -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실업률은 3.8%에 불과하나,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14.1%에 달함
 - 통계청의 1월 물가상승률은 0.8%이나 체감물가상승률은 3.3%에 이름
 - 체감경제고통은 소비심리 및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 존재
- (연구목적)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경제고통을 수치로 표현하고 계층별 요소별 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
 - 체감경제고통지수 구축은 국민의 삶의 질 파악은 물론 소비 진작을 위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연구방법) 경제고통지수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하위지표를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경제고통지수를 구축
 - 설문조사 개요 : 전국 성의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물가, 고용, 소득, 지출 상태와 전망에 대한 설문을 통해 국민의 인식을 조사¹⁾
 - 조사기간은 2015년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며, 유선전화 설문으로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pm 3.1\%$ p임

1) 응답자의 특성은 부록 참조.

2. 체감경제고통지수 정의 및 산출방식

○ (선행연구) 경제고통지수는 경제학자 오쿤(Okun)에 의해 처음 고안되었으며, 이후 여러 가지의 보완된 지표가 개발

-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으로 경제적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

- 오쿤(Okun, 1975)은 국민의 삶에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이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 착안하여 두 개의 합으로 경제고통지수를 고안
- 베로(Barro, 1999)는 소득과 이자지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의 오쿤의 경제고통지수에 국민소득증가율과 이자율을 포함한 지표를 제안
- 한국은행은 국민의 소비심리와 체감경기를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동향조사를 통해 체감경기 및 소비, 지출, 물가에 대한 조사를 시행

○ (정의) 현대경제연구원의 체감경제고통지수는 오쿤의 경제고통지수(실업·물가)에 소득 및 지출 변수를 포함하여 새롭게 구성

- 기존의 경제고통지수들이 포함하고 있는 실업률, 물가상승률, 소득상승률 뿐만 아니라 지출변수를 추가

- 소비 지출 중 문화여가지출은 체감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인 반면, 교육·주거·의료비 같은 의무지출은 체감경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문화여가지출은 오락·문화 등에 대한 지출로, 내구재 지출과 유사하게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²⁾
- 의무지출은 주거, 보건, 교육 등에 대한 지출로,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 둔화 시 의무지출이 크게 변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해 체감경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음³⁾

-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고통지수의 하위지표 5개에 대해 국민 개개인의 체감도를 조사하고 지수로 구축

- 오쿤 등의 경제고통지수는 정부가 발표하는 거시경제 지표를 이용하여 산출
- 반면 현대경제연구원의 체감경제고통지수는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물가와 실업, 소득, 지출을 이용하여 산출

2) Malgarini and Margani(2007) 참조.

3) 조현성(2008)에 따르면 경기위기 시 소비지출 부분별 감소 조사에서 주생활(14.3%), 보건및의료(5.3%), 교육(4.6%)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음.

○ (산출방식) 체감경제고통지수는 5개의 하위지표를 이용해서 '현재 체감경제고통지수'와 '전망 체감경제고통지수'를 각각 산출

- 현재 체감경제고통지수 : 현재의 물가, 실업, 소득, 지출 지표 5개로 산출
 - 1년 전에 비해 현재의 체감물가상승률, 체감소득증가율, 체감의무지출증가율, 체감문화여가지출증가율
 - 체감실업률($\frac{\text{실업자}}{\text{취업자}+\text{실업자}} \times 100$)은 스스로 생각하는 현재의 고용상태
- 전망 체감경제고통지수 : 1년 후의 물가, 실업, 소득, 지출 지표 5개로 산출

(식) 체감경제고통지수 = 체감물가상승률 + 체감실업률 - 체감소득증가율 + 체감의무지출증가율 - 체감문화여가지출증가율

- 경제고통지수 1p 상승의 국민경제적 의미
 - 물가상승률 측면 : 모든 가구의 실질소득이 1%p 감소
 - 실업률 측면 : 일자리 26.5만개 감소
 - 소득증가율 측면 : 모든 가구의 실질소득이 1%p 감소
 - 의무지출증가율 측면 : 모든 가구의 의무지출 1%p 증가
 - 문화여가지출증가율 측면 : 모든 가구의 문화여가지출 1%p 감소

< 체감경제고통지수 구성 >

체감경제고통지수		선행연구	영향방향
현재	전망		
1년 전 대비 현재 체감물가상승률	1년 후 전망 체감물가상승률	Okun(1975)	(+)
현재 체감실업률	1년 후 전망 체감실업률	Okun(1975)	(+)
1년 전 대비 현재 체감소득증가율	1년 후 전망 체감소득증가율	Barro(1999)	(-)
1년 전 대비 현재 체감의무지출증가율	1년 후 전망 체감의무지출증가율	조현성(2008)	(+)
1년 전 대비 현재 체감문화지출증가율	1년 후 전망 체감문화지출증가율	Malgarini and Margani(2007)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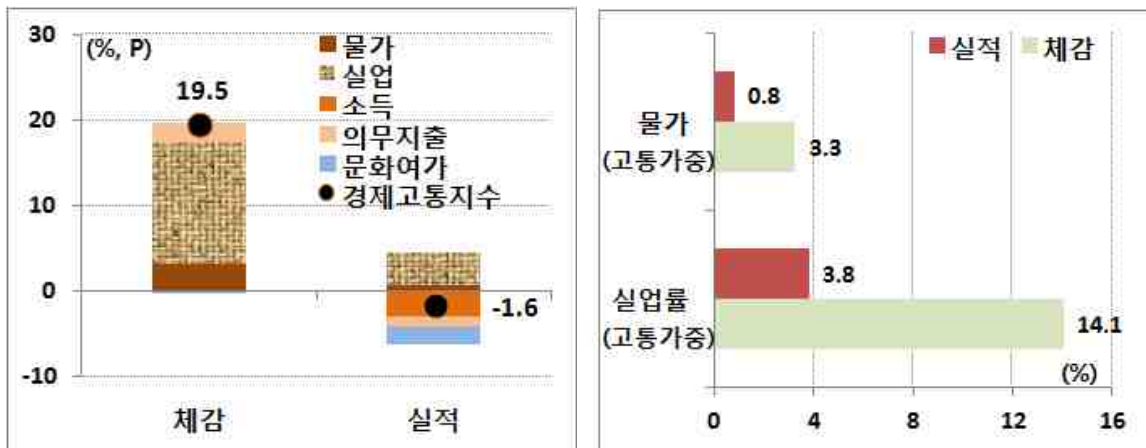
3. 체감경제고통지수 조사 결과

(1) 체감경제고통지수와 실적경제고통지수 비교

○ 2015년 1분기에 체감경제고통지수는 19.5p로, 정부 공식 통계치로 산출한 실적경제고통지수 -1.6p보다 21.1p나 높은 수준

- 정부가 발표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월 기준 0.8%인 반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상승률은 3.3%로 2.5%p 높은 수준
 - “정부는 소비자물가가 1년 전에 비해 0.8%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귀하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몇 % 상승하거나 하락한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평균치⁴⁾는 3.3%로 나타남
 - 국민들은 물가가 정부 발표치보다 4배나 빨리 상승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어, 정부의 물가정책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 정부가 발표한 실업률이 1월 기준 3.8%에 불과한 반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14.1%로 10.3%p나 더 높은 수준
 - “귀하의 고용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을 기초로 산출한 체감실업률이 14.1%에 달함
 - 통계청 기준으로는 취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자신 스스로는 실업자라 생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

<체감경제고통지수와 실적경제고통지수> <체감 및 실적 물가소득 증가율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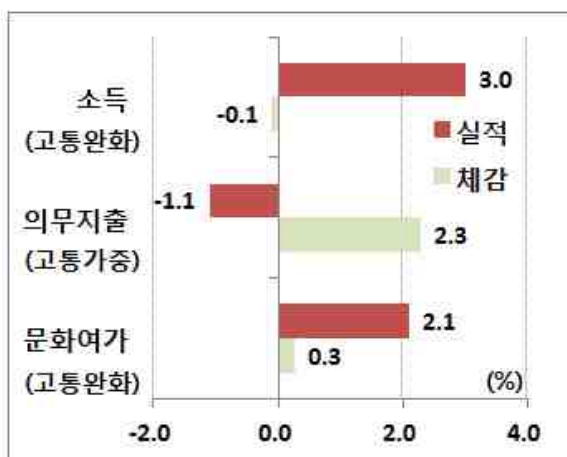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체감경제고통지수 = 체감물가 상승률 + 체감실업률 - 체감소득 증가율 + 체감 의무지출증가율 - 체감 문화여가지출증가율”로, 구성 지표의 기여도는 계산식의 부호를 적용.

4) 1,007개 표본 중 이상치(outlier; 평균에서 표준편차의 3배 이상 떨어져 있는 응답) 25개를 제외한 982개 표본의 평균임. 이하 소득, 지출 등 모든 변수의 평균치도 이상치를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 정부가 발표한 소득증가율은 2014년 4분기 기준 3.0%이나 국민의 체감소득증가율은 마이너스(-0.1%)로 3.1%p의 격차를 보임
 - “정부는 가계소득이 1년 전에 비해 3.0%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귀하를 포함한 귀댁의 소득은 몇 % 증가하거나 감소한 것 같습니까?”에 대한 응답의 평균치는 -0.1%에 불과
 - 세금, 4대 공공보험료, 원리금상환 등으로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판단됨
- 정부가 발표한 의무지출증가율은 -1.1%로 감소하였으나,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의무지출은 2.3% 증가하여 격차가 3.4%p를 기록
 - “정부는 가계의 교육비·주거비·의료비 지출이 1년 전에 비해 1.1%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귀댁은 몇 %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 같습니까?”에 대한 응답의 평균치는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발표치와 괴리
 - 의무지출은 경기가 둔화되는 시기에도 지출을 줄이기 힘들어 체감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됨
- 정부가 발표한 문화여가지출증가율은 2.1%이나, 국민이 느끼는 문화여가지출증가율은 0.3%에 그쳐 1.8%p의 격차를 보임
 - “정부는 가계의 문화·여가 지출이 1년 전에 비해 2.1%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귀댁은 몇 %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 같습니까?”에 대한 응답의 평균치는 0.3%를 기록
 - 의무지출과는 달리 문화여가지출 같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출은 경기 둔화 시 크게 줄어드는 경향 존재

<체감 및 실적 의무지출·문화지출 증가율>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요소별 체감-실적 괴리 기여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 (성별) 2015년 1분기에 여성의 체감경제고통지수는 21.1p로 남성의 18.1p보다 3.0p 더 높음

- 여성은 남성보다 체감실업률이 높아 체감경제고통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체감실업률은 15.7%로 남성의 12.7%보다 3.0%p 더 높으며, 물가와 소득, 지출에 대한 체감도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수준

○ (연령별) 20대 청년의 체감경제고통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30대와 40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청년의 체감실업률이 37.5%에 달해 체감경제고통이 40.6p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
 - 청년의 체감실업률은 37.5%로 평균(14.1%)보다 23.4%나 더 높은 수준인 반면, 물가와 소득, 의무지출, 문화여가지출은 상대적으로 양호
- 30대 및 40대의 경우 물가 및 소비지출 측면에서 평균보다 경제고통이 다소 크지만, 고용상태가 매우 양호
 - 중년층의 물가인식은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높은 의무지출, 낮은 문화여가지출을 보이는 경향
- 50대 이상 장·고령층은 소득 측면이 다소 약하고 체감실업률도 11.1%를 기록하고 있지만, 체감경제고통지수가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
 - 장·고령층의 체감소득증가율은 -1.4%, 체감실업률이 11.1%지만, 30, 40대에 비해서 체감의무지출이 줄어들고 체감문화여가지출이 다소 증가

< 성별 체감경제고통지수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연령별 체감경제고통지수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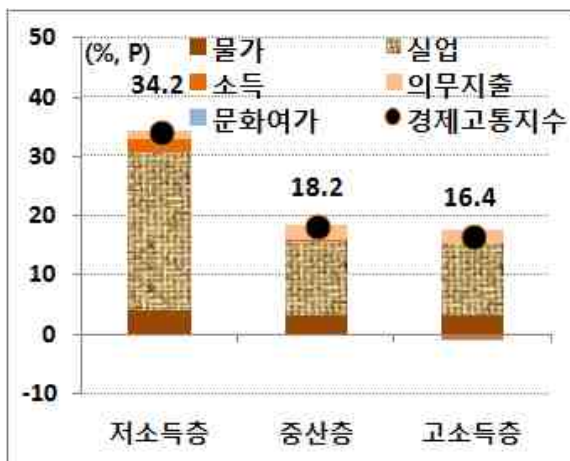
○ (소득수준별) OECD 기준으로 소득계층을 구분하면 저소득층의 체감경제고통 지수가 높은 반면 고소득층은 낮은 편⁵⁾

- 저소득층이 다른 계층이 비해 상대적으로 체감실업률, 체감물가상승률이 높아 체감경제고통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층의 체감실업률은 26.7%로 중산층(12.5%), 고소득층(12.2%)보다 높고 체감물가상승률도 4.0%로 중산층(3.3%), 고소득층(3.1%)를 상회
- 중산층은 다른 계층이 비해 상대적으로 의무지출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중산층이 소득 대비 높은 교육비, 주거비 등 의무지출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⁶⁾

○ (지역별) 서울지역의 체감경제고통지수가 높은 반면 영남지역은 낮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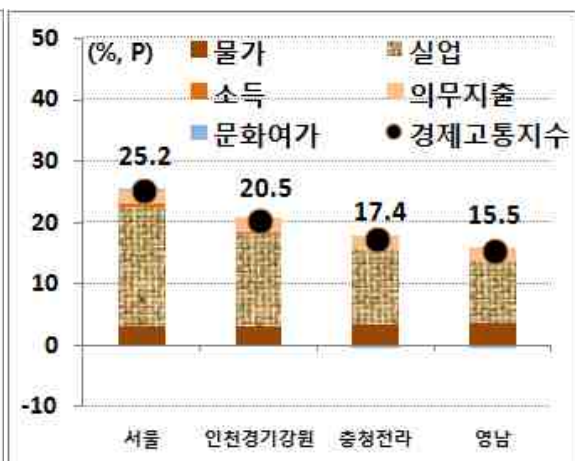
- 서울 지역이 다른 지역이 비해 상대적으로 체감실업률이 높아 체감경제고통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의 체감소득상승률은 0.4%로 다른 지역보다 다소 낮고 체감실업률은 19.4%로 다른 지역 수준을 크게 상회
- 영남 지역이 다른 지역이 비해 상대적으로 체감실업률이 낮아 체감경제고통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영남의 체감실업률은 10.2%로 다른 지역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지만, 체감물가상승률은 3.5%로 다소 높음

< 소득수준별 체감경제고통지수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지역별 체감경제고통지수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5) 2013년 기준 균등화가처분소득의 중위값은 1,832,641원이고, 2014년의 균등화가처분소득의 중위값은 3.2% 증가한 1,891,286원으로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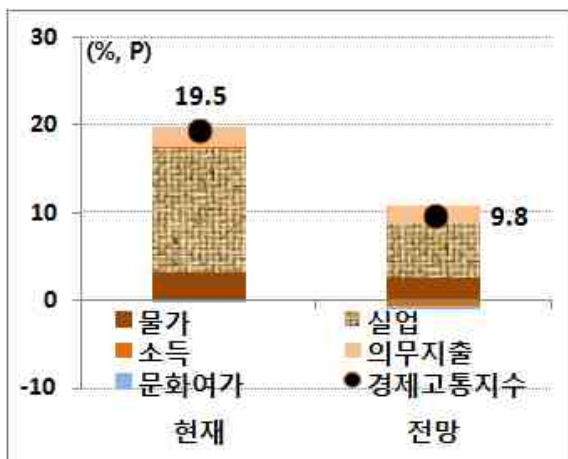
6) 현대경제연구원(2015.02), “우리나라 중산층 삶의 질 변화”에서도 유사한 분석 결과.

(2) '현재 체감경제고통지수'와 '전망 체감경제고통지수' 비교

○ 국민들은 1년 후의 경제고통이 현재의 경제고통보다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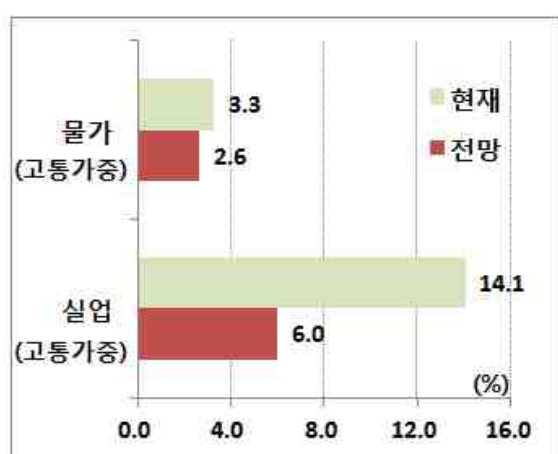
- 1년 후의 경제고통을 나타내는 '전망 체감경제고통지수'는 9.8p로, '현재 체감경제고통지수' 19.5p보다 매우 낮은 수준
 - 체감실업률, 체감물가상승률, 체감의무지출증가율 같이 경제고통을 가중시키는 지표는 현재보다 전망이 낮은 모습
 - 경제고통을 완화하는 지표인 체감소득과 체감문화여가지출은 미래에 증가속도가 빨라지면서 경제고통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
-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이 현재에는 14.1%에 달하는 반면, 1년 후에는 6.0%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
 - 전망 체감실업률 6.0%는 정부가 발표한 2015년 1월 기준 3.8%의 실업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지만, 청년층의 전망 체감실업률이 크게 감소하면서 경제고통지수를 낮추는 영향
- 국민이 현재 느끼는 체감소득증가율은 마이너스(-0.1%)를 기록한 반면, 1년 후 전망 체감소득증가율은 0.6%로 다소 개선
 - 모든 세대에서 체감소득 증가율이 현재보다 미래에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승폭은 미약하고, 50대 이상은 1년 후에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

<현재 및 전망 체감경제고통지수>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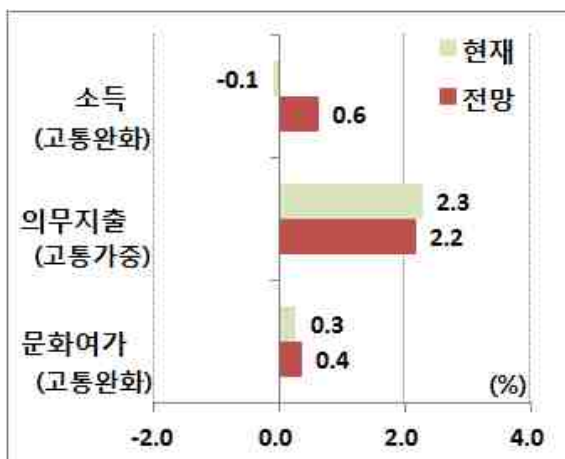
<현재 및 전망 체감 물가·소득·실업>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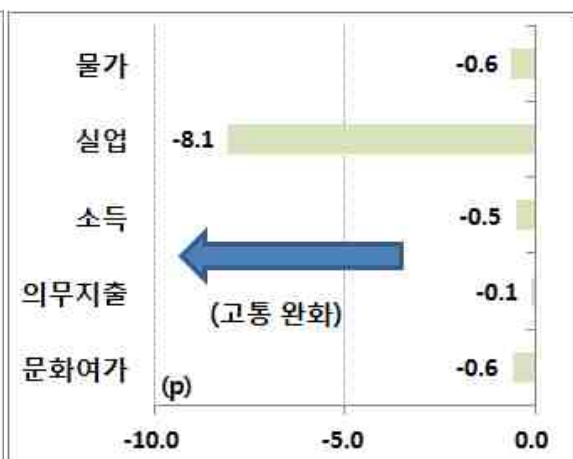
- 국민은 현재 체감의무지출이 2.3% 증가했다고 느끼고 있으며, 1년 후에는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국민이 전망하는 의무지출증가율은 현재와 크게 변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이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부담이 앞으로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국민들이 생각한다는 의미
- 국민은 현재 문화여가지출이 0.3% 증가에 그쳤다고 느끼고 있으며, 1년 후에도 0.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
 - 특히 고소득층의 경우 문화여가지출을 현재 0.3%에서 1년 후 0.6%로 늘릴 것으로 전망했지만,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경우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정체
 - 소득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여가 소비를 늘릴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
- 전망 체감경제고통지수가 현재 경제고통지수에 비해 크게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에 대한 긍정적 전망 때문
 - 현재 체감실업률과 전망 체감실업률의 격차가 8.1%p로, 주로 청년층에서 1년 후에 체감실업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의무지출증가율 격차는 0.1%p, 소득증가율 격차는 0.5%p, 물가상승률 격차는 0.6%p, 문화여가지출증가율 격차는 0.6%p로, 모두 전망 체감경제고통을 현재에 비해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여

<현재 및 전망 체감의무지출문화지출 증가율>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요소별 전망-현재 체감 괴리 기여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종합) 현재 체감경제고통이 가장 큰 사람은 “서울에 사는 20대 저소득층 여성”이며, 1년 후 전망은 “서울에 사는 50대 저소득층 여성”으로 변화
- 2015년 1분기 현재 체감경제고통을 가장 크게 느끼는 사람은 “서울에 사는 20대 저소득층 여성”
 - 현재 체감경제고통지수가 서울(25.2), 20대(40.6), 저소득층(34.2), 여성(21.1)은 높은 반면, 영남(15.5), 30대(10.3), 고소득층(16.4), 남성(18.1)은 낮은 편
- 1년 후에 체감경제고통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은 “서울에 사는 50대 이상 저소득층 여성”
 - 전망 체감경제고통지수가 서울(15.1), 50대이상(15.1), 저소득층(25.6), 여성(11.4)은 높은 반면, 충청전라(6.6), 30대(4.9), 고소득층(7.3), 남성(8.5)은 낮은 편

<현재 및 전망 체감경제고통지수 종합>

(%)

구분	현재 체감경제고통지수						전망 체감경제고통지수						
	물가	실업	소득	의무지출	문화지출	물가	실업	소득	의무지출	문화지출			
전체가구	19.5	3.3	14.1	-0.1	2.3	0.3	9.8	2.6	6.0	0.6	2.2	0.4	
성별	남자	18.1	3.3	12.7	-0.2	2.2	0.3	8.5	2.6	4.6	0.5	2.1	0.3
	여자	21.1	3.3	15.7	0.0	2.4	0.3	11.4	2.7	7.6	0.7	2.2	0.5
연령별	20대	40.6	2.8	37.5	0.3	1.1	0.6	11.1	2.4	9.5	1.0	0.9	0.7
	30대	10.3	3.5	4.8	0.5	2.7	0.0	4.9	2.8	0.7	1.2	2.9	0.4
	40대	11.3	3.5	4.5	0.0	3.3	-0.1	10.0	2.6	4.9	0.5	2.9	-0.1
	50대 이상	17.2	3.3	11.1	-1.4	1.9	0.5	15.1	2.6	10.6	-0.4	1.8	0.4
소득별	저소득층	34.2	4.0	26.7	-2.4	1.5	0.3	25.6	3.1	20.5	-0.6	1.8	0.3
	중산층	18.2	3.3	12.5	-0.3	2.4	0.3	8.8	2.6	4.7	0.6	2.3	0.3
	고소득층	16.4	3.1	12.2	0.9	2.3	0.3	7.3	2.6	4.1	0.9	2.1	0.6
지역별	서울	25.2	3.2	19.4	-0.4	2.3	0.0	15.1	2.7	10.1	0.3	2.6	0.0
	인천경기강원	20.5	3.0	15.2	-0.2	2.4	0.3	11.0	2.4	7.5	0.4	1.8	0.3
	충청전라	17.4	3.5	12.1	0.1	2.3	0.4	6.6	2.7	3.3	1.0	2.1	0.6
	영남	15.5	3.5	10.2	0.1	2.2	0.3	7.1	2.8	3.3	0.8	2.4	0.5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체감경제고통지수 = 체감물가 상승률 + 체감실업률 - 체감소득 증가율 + 체감의무지출 증가율 - 체감문화여가지출 증가율”로, 구성 지표의 기여도는 계산식의 부호를 적용.

4. 시사점

- 국민이 실제 느끼는 체감경제고통은 소비심리와 실제 소비지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체감경제고통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
 - 첫째, 청년층과 장·고령층, 저소득층의 체감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고용여건 개선 및 일자리의 질 향상 대책이 긴급한 상황
 - 체감경제고통과 실적경제고통의 괴리에서 체감실업률과 실적실업률 차이의 기여도는 10.3p로 대부분을 차지
 - 청년 및 장·고령층, 저소득층 취업자의 상당수가 자신을 실업자로 인식하는 이유는 일자리의 질이 낮기 때문
 - 통계청 기준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가 자신을 실업자로 인식하는 이유는 단지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을 뿐 취업 의사가 있음을 반영
 - 둘째, 저소득층 및 50대 이상의 소득향상대책을 강구하고 세금 및 4대 공적보험,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대책을 강화
 - 체감경제고통과 실적경제고통의 괴리에서 체감 소득증가율과 실적 소득증가율 차이의 기여도는 3.1p임
 - 특히 저소득층의 체감 소득증가율은 -2.4%에 불과하고 체감실업률이 높은 수준인 만큼,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실업급여 및 최저생계비 보장 등과 같은 사회안전망 확대 필요
 - 셋째, 국민의 삶에서 의무지출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 필요
 - 체감경제고통과 실적경제고통의 괴리에서 체감의무지출 증가율과 실적의무지출 증가율 차이의 기여도는 3.4p임
 - 특히 중산층이 느끼는 체감의무지출 증가율은 2.4%로 다른 계층에 비해 높은 수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주거비 및 교육비 등 의무지출 부담을 완화
 - 넷째, 체감물가를 낮추는 정책을 통해 실제물가와 체감물가와의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최근 수입물가 하락과 국내 내수 경기가 위축되면서 실적 물가상승률이 1% 이하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 상승률은 3.3%로 높은 수준

- 국민의 높은 체감물가 인식은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미쳐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가능성 존재
 - 농축산물, 주거비 등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과 가격 안정에 노력
- 다섯째,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여가지출 확대 여건 마련
- 체감경제고통과 실적경제고통의 괴리에서 체감문화여가지출 증가율과 실적 문화여가지출 증가율 차이의 기여도는 1.8p로 다른 지표에 비해 작은 수준
 - 하지만 문화여가지출은 국민이 지출하는 여유소비와 실제 느끼는 삶의 질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 문화여가지출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실질소득을 증대가 가장 중요하고, 여가의 수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과도한 노동시간의 단축,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교통여건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
- 여섯째, 체감경제고통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와의 연관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경기선행지표로의 활용 가능성 모색
- 체감경제고통 정도가 소비자심리와 상당한 연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별, 계층별 소비심리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 필요

이준협 연구위원 (2072-6219, sododuk1@hri.co.kr)

오준범 연구원 (2072-6247, jboh19@hri.co.kr)

< 응답자 특성 >

응답자 특성		비중(%)	응답자 특성		비중(%)
전체	1007명	100	OECD 계층별	저소득층	25.3
성별	남성	51.3		중산층	69.0
	여성	48.7		고소득층	5.7
연령별	20대 이하	23.1	지역별	서울	21.2
	30대	27.5		인천경기강원	30.4
	40대	25.6		충청전라제주	21.7
	50대 이상	23.7		영남	26.7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HRI 경제 통계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2.3	3.0	3.7	3.6	3.6	3.5	3.6	3.6
	민간소비 (%)	1.9	2.0	2.0	2.6	2.3	3.0	2.6	2.8
	건설투자 (%)	-3.9	6.7	1.9	1.8	1.9	1.8	4.3	3.0
	설비투자 (%)	0.1	-1.5	7.5	3.9	5.7	4.2	6.0	5.1
	지재투자 (%)	8.6	7.3	6.5	5.9	6.2	7.3	7.0	7.1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508	799	392	408	800	320	360	680
	무역수지 (억 달러)	283	440	202	231	433	192	234	426
	수출 (억 달러)	5,479	5,596	2,833	2,936	5,770	2,949	3,074	6,023
	(증가율, %)	(-1.3)	(2.1)	(2.5)	(3.7)	(3.1)	(4.1)	(4.7)	(4.4)
	수입 (억 달러)	5,196	5,156	2,631	2,705	5,336	2,757	2,840	5,597
	(증가율, %)	(-0.9)	(-0.8)	(2.6)	(4.4)	(3.5)	(4.8)	(5.0)	(4.9)
소비자물가 (평균, %)	2.2	1.3	1.4	1.9	1.7	2.0	1.9	1.9	
15~64세 고용률 (%)	64.2	64.4	65.0	65.6	65.3	66.0	66.5	66.2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